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일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분석

이현숙, 배상윤*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o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Hyun-Suk Lee, Sang-Yun Bae*
Professor,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약 본 논문은 일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우울에 대한 융합적 영향을 밝혀 보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 304명으로 하였다. 우울은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업소진이 증가할수록, 불안이 증가할수록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업 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원의 확충 및 다양한 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대학생, 우울,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convergen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 12, 2018 to Dec. 14, 2018 and the target was randomly selected 304 students from colleges located in J area.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howed that the job seeking stress, the higher academic burnout and the higher anxiety tend to increase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o lower college students'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try to lower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for employment counseling, academic counseling, and expansion of resource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various interventions that lower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future studies, the survey about additional factors of influence on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will be needed.

Key Words :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xiety

*Corresponding Author : Sang-Yun Bae(sangyb@jvision.ac.kr)

Received March 5,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4,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대학생은 대학의 재학생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과 전문직업인으로써 역량을 키워나가는 예비 지식인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 성인에 접어들어, 줄어든 계약으로 생활의 자유가 확대되는 시기에 있다[1]. 현대의 대학생은 취업 시기 및 직장 선택과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교과정으로부터 이어지는 학업부담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분야의 학습밀도는 가중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하여 임시고용에 종사하기도 하고, 최근의 청년실업문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직업인성, 창업 및 취업교육 등이 수반하는 전공학습의 집중력 분산의 위험이 있으며, 미래에 대하여 심화되고 점증되어가는 불안감 등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2].

대학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취업여건의 악화 및 청년실업 확대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3], 다양한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에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2].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높은 취업 장벽은 대학생에게 전공학습부담 증가, 현장실무능력 강화, 자격 및 면허증 취득 필요성 증대, 취업 및 직장인성교육 부여, 창업 및 혁신에 대한 의욕 및 경향의 주입은 가까운 선배세대가 무리하게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서적인 압박을 발생시키고 있다[1]. 대학생 시기에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압박으로 연계되어, 무력, 냉소 및 소모감을 일으켜 신체 및 정서적 탈진을 유도할 수 있고[2], 학업에 대한 냉담 및 무능감으로 학업수행이 문제를 경험하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4].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가 주는 취업스트레스 및 이에 따르는 학업소진은 부적응 및 긴장상태를 야기하여 정신적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다[4].

대학생의 취업 및 학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심리 및 정서적 불안이 주는 압박을 조절하는 방어기전을 약화하고[5], 소외된 감정이 심리적 장애를 높이고 사회기술의 습득을 방해하여, 개인의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상실, 침울, 무력감 및 무가치감 등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다[6]. 대학생의 우울은 신체적인 활동 및 정신적인 기능의 부진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 및 관심, 동기, 의욕 및 사고과정의 결함으로[7,8], 개인 및 주변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1],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욕 및 자신감 결여, 학업의 집중력 약화와 현실의 불안감 확산으로 연계될 수 있다[9]. 이와 같이 대학생의 우울문제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인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며,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관련요인의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9].

대학생의 우울문제의 관련성을 조사한 기존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며[4],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있고[2,3], 여고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불안과 연결되어 우울에 영향을 주며[10,11],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우울문제에서 중점요인으로 지적되었고[12,13], 여대생의 우울은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완화될 수 있으며[7,9], 불안과 우울은 상호관련성이 제시되었다[14]. 기존조사에서는 우울과 관련성을 보이는 각각의 요인과 우울에 대한 지협적인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갖는 상호간의 관련성 및 융합적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격, 가정환경, 학업, 학교환경 및 취업불안 등의 취업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인한 학업소진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원인이 불명확한 내적 감정충돌로 일어나는 불안이 상호 관련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분,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및 신체활동 등의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우울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우울과의 관계가 조사되어 보고된 요인들 간의 인과성에 의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의 상호간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는 융합적인 접근을 초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요인 간 및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업 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자원의 확충 및 다양한 교육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 J지역 소재 임의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였다. 자료의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15]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이론적인 모형의 구조를 지원하면서 수용할만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선택하여 적합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내생잠재변수는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로, 외생잠재변수는 취업스트레스로 구성하였으며, 경로도에는 유의한 경로계수만을 나타내었다. $p < .05$ 을 통계량의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 77.6%, 남학생 22.4%, 연령은 21세미만 60.9%, 21세이상 39.1%, 체질량지수는 18.5미만 17.8%, 18.5-22.9 61.8%, 23-24.9 10.9%, 25이상 9.5%, 종교 유무 있음 41.8%, 없음 58.2%, 집안의 경제사정 좋음 66.1%, 나쁨 33.9%, 부모의 양육태도 허용적 79.6%, 엄함 20.4%, 교수와의 관계 좋음 94.7%, 나쁨 5.3%, 따돌림이나 폭력 경험 있음 13.2%, 없음 86.8%, 음주 여부 함 68.1%, 안함 31.9%, 흡연 여부 함 14.8%, 안함 85.2%, 규칙적 식사 여부 함 26.6%, 안함 74.4%, 규칙적 운동시행 여부 함 23.7%, 안함 76.3%이었다.

3.2 우울 및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듯이, 우울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하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과,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Demographic factor of subjects (n=304)

Control variable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68(22.4)
	Female	236(77.6)
Age(year)	<21	185(60.9)
	21 ≤	119(39.1)
	18.5-22.9	188(61.8)
BMI(kg/m ²) [†]	<18.5	54(17.8)
	18.5-22.9	188(61.8)
	23.0-24.9	33(10.9)
	25 ≤	29(9.5)
Religion	Yes	127(41.8)
	No	177(58.2)
Economics status of family	Good	201(66.1)
	Difficult	103(33.9)
Parental rearing attitudes	Acceptable	242(79.6)
	Strict	62(20.4)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Good	288(94.7)
	Bad	16(5.3)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Yes	40(13.2)
	No	264(86.8)
Drinking alcohol	Yes	207(68.1)
	No	97(31.9)
Cigarette smoking	Yes	45(14.8)
	No	259(85.2)
Regular Eating	Yes	81(26.6)
	No	223(73.4)
Regular exercise [‡]	Yes	72(23.7)
	No	232(76.3)

[†]The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BMI score are as follows. Under weight(≤18.4), normal weight(18.5-22.9), Over weight(23.0-24.9), Obese(25.0≤)

[‡]: At least three times a week,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3.3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1개의 외생개념(취업스트레스)과 2개의 내생개념(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을 이론적 변수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론적 변수의 관측변수는, 취업스트레스는 CMI의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스트레스로, 학업소진은 MBI-SS의 하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불안은 BAI로, 우울은 CES-D로 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 factors

Var.	1	2	3	4	5	6	7	8	9
1. Depression(CES-D)	1								
Job seeking stress(CMI)	.484**	1							
2. Personality stress			1						
3. Home environment stress	.301**	.690**	.690**	1					
4. Schoolwork stress	.404**	.725**	.725**	.630**	1				
5. School environment stress	.303**	.683**	.683**	.658**	.675**	1			
6. Unstable job stress	.311**	.778**	.778**	.673**	.576**	.698**	1		
Academic burnout(MBI-SS)								1	
7. Exhaustion	.410**	.411**	.242**	.324**	.212**	.207**			1
8. Cynicism	.401**	.360**	.133*	.337**	.186**	.208**	.593**		
9. Inefficacy	.317**	.154**	.024	.204**	.119*	.160**	.105	.379**	
10. Anxiety(BAI)	.665**	.397**	.358**	.299**	.287**	.262**	.269**	.198**	.169**

* : p<.05, ** : p<.01.

Table 4.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chi^2 = 30.155(df = 22)$, $\chi^2/df = 1.371$, $p = .115$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24	
Absolut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 .981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5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35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982
	TLI(Tucker-Lewis Index) = .9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95

Table 4에서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30.155(df=22)$ 이며, $\chi^2/df=1.371$ 로 판단기준치 3이하이고, 유의확률은 판단기준치 .05이상인 $p=.115$ 이었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5이하인 .024이였으며, 기초부합치(GFI)는 .9이상인 .981이었고, 조정부합치(AGFI)도 .9이상인 .953이였으며,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8이하인 .035로 나타났다. 한편,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9이상인 .982이었고,

비표준적합지수(TLI)는 .9이상인 .990이였으며, 비교부합지수(CFI)는 .9이상인 .995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었다.

Table 5 및 Fig. 1에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표준경로계수로 보면,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에 대해 .312로 정(+)의 직접효과, 불안에 대해 .335로 정(+)의 직접효과와 우울에 대해 .10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효과를 표준경로계수로 보면, 학업소진은 불안에 대해 .217로 정(+)의 직접효과와 우울에 대해 .354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불안은 우울에 대해 .512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SMC)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9.7%, 취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이 불안을 20.5%,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을 58.3% 설명하였다. 우울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5%, 그 외 모든 경로계수는 1%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

Table 5.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cademic burnout(MBI-SS)	Anxiety(BAI)	Job seeking stress(CMI)	Z	SMC [¶]
Academic burnout(MBI-SS)		.312**	.064	.097
Anxiety(BAI)	(.217**) ^{¶¶}	.335**	.266	.205
Depression(CES-D)	.354**	.512**	.108*	.583

* : $p<.05$, ** : $p<.01$,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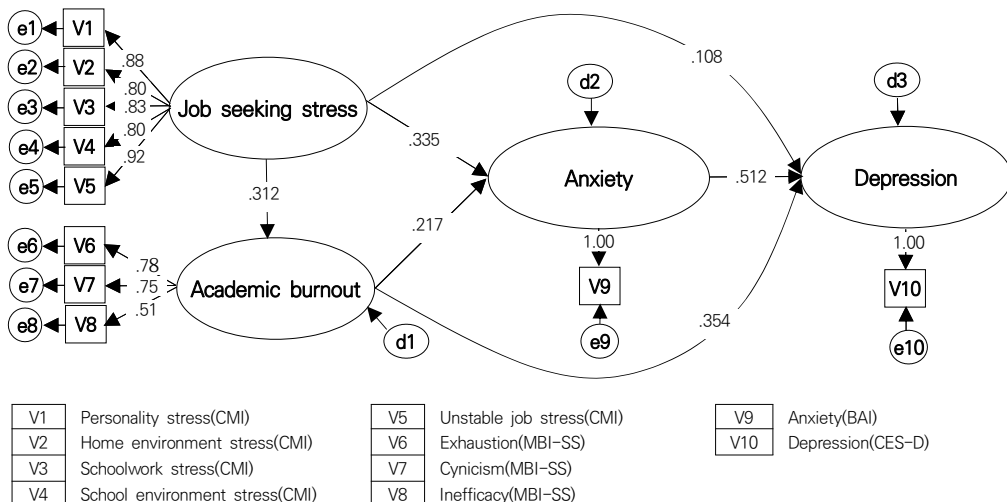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 고찰

본 조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시행되었다.

우울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은 취업스트레스의 5가지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3가지 하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과,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취업스트레스 [2,3,7,9,12,13], 학업소진[10,11] 및 불안[5,14]은 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 가정환경, 학업, 학교환경 및 취업불안이 유발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미래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우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업에 대한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신체 및 정신적 피로감과 조절감이 낮아지고 자존감과 실패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되는 학업소진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원활치 못한 대인관계를 이끌 수 있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인이 불명확한 내적 감정충돌과 위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미감한 반응인 불안은 몸과 마음의 불건강을 이끄는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취업 문제가 심화되고, 학업부담이 가중되며, 위협에 민감한 대처를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유연하고 적절히 행동하며, 학업소진을 낮추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위협하지 않은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불명확한 내적 감정충돌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긍정심리역량을 강화하는 상담 자원의 개발 및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외생잠재변수는 취업스트레스로, 내생잠재변수는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로 하여,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델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 표준경로계수에서 볼 때, 학업소진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312로 나타났고, 불안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335, 학업소진으로부터 .217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108, 학업소진부터 .354, 불안으로부터 .512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7,9,12,13], 학업소진이 높아질수록[10,11], 불안이 커질수록[5,14], 우울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보고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에서

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보완 및 활용하여,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며, 전공에 대한 학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동기 및 의지를 통하여 학업성취를 자발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함으로써 불안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행요소로 관리되어야 하며, 예방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존하였으므로 응답편의(response bias)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사에 사용된 척도의 개발 시기가 상당한 정도로 경과되어, 타당도 및 신뢰도가 수용만한 수준이더라도 현대의 대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흔하지 않은 실정에서,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및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청년취업, 학업부담 및 불안이 높아지는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춰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에 대학생의 우울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25,26] 등과 같은 추가요인들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대학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대학생 30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우울은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확인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질수록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우울에 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인,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업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원의 확충 및 다양한 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REFERENCES

- [1] H. S. Lee & S. Y. Bae. (2017). Influence of stress, self factor and emotional factor on smartphone addict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326-336.
DOI : 10.5392/JKCA.2017.17.05.326
- [2]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23-333.
DOI : 10.14400/JDC.2016.14.12.323
- [3] S. H. Kim & S. Y. Bae.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childbirth perception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389-397.
DOI : 10.14400/JDC.2016.14.9.389
- [4] S. M. Hong, S. H. Kim & S. Y. Bae. (2017). An analysis on structure equation model of convergent influence on academic burnout of health major students in studying for TOE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29-342.
DOI : 10.14400/JDC.2017.15.7.329
- [5] S. H. Choi & H. Y. Lee. (2014).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of anxiety, un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19-627.
DOI : 10.5392/JKCA.2014.14.10.619
- [6] S. H. Kim & S. Y. Bae. (2018). A study on the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51-258.
DOI : 10.14400/JDC.2018.16.6.251
- [7] S. H. Kim & S. Y. Bae. (2015).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367-375.
DOI : 10.14400/JDC.2015.13.10.367
- [8]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type A behavior pattern and depression on job burnout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345-351.
DOI : 10.14400/JDC.2018.16.3.345
- [9]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69-278.
DOI : 10.14400/JDC.2016.14.3.269
- [10] H. Y. Lee & Y. C. Cho. (2018). Validation of casual model for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xiety,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hopelessness on depression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208-217.
DOI : 10.5762/KAIS.2018.19.1.208
- [11] Y. J. Yun & M. S. Lee. (2018). The influences of family health, academic stres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6(1), 87-101.
DOI : 10.7466/JKHMA.2018.36.1.87
- [12] E. S. Bae & H. S. Kang. (2018).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4), 181-192.
DOI : 10.21184/jkeia.2018.6.12.4.181
- [13] M. J. Park & H. N. Yoo. (2018). Major 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Comparing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1(1), 29-38.
DOI : 10.15434/kssh.2018.31.1.29
- [14] C. M. Lee. (2018). Development of an multi-dimentional affect scale for distinguishing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393-406.
DOI : 10.15207/JKCS.2018.9.10.393
- [15]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16] M. Shepherd, B. Cooper, A. C. Brown & G. W. Kalton. (1966).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DOI : 10.1192/bjp.113.499.688
- [17] H. J. Kim & Y. R. Kan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Korean J of Dance Education*, 8(2), 57-84.
UCI G901:A-0004130625
- [18]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DOI : 10.1177/0022022102033005003

- [19] H. Shin, A. Puig, J. Lee, J. H. Lee & S. M. Lee. (2011).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 633-639.
UCI : G901:A-0003483744
- [20] A. T. Beck, N. Epstein, G. Brown & R. A. Steer.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DOI : 10.1037/0022-006X.56.6.893
- [21] S. M. Kwon.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22] S. M. Kwon. (2003). *Modern abnormal psychology*. Seoul : Hakjisa.
UCI : G901:A-0006460234
- [23] M. M. Weissman & B. Z. Locke. (1975).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mpto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2(5), 430-431.
DOI : 10.1093/oxfordjournals.aje.a112183
- [24] M. J. Cho & K.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UCI : G901:A-0000932112
- [25] K. S. Paek. (2017). A convergence study the association between addictive smart phone use,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61-69.
DOI : 10.15207/JJKCS.2017.8.1.061
- [26] K. M.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113-123.
DOI : 10.15207/JJKCS.2016.7.1.113

이 현 숙(Lee, Hyun-Suk)

[정회원]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의무기록

· E-Mail : taihun02@naver.com

배 상 윤(Bae, Sang-Yun)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ision.ac.kr